

麻疹篇 저자와 저술 시기에 대한 고찰

유철호,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A Study on the Author and Writing Year of the Marjinyeon

Chul-Ho Yoo, Nam-Il Kim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A thesis insisting that Sugjong's medical doctor Yoo Itae(劉以泰) and the author of Marjinyeon Yoo Itae(劉爾泰) are not a same person and his activities were in Heonjong(현종) period, and his writing Marjinyeon is in 1846, is published. In this study, I'd like to reveal that Yoo Itae(劉爾泰), the Marjinyeon's author and Yoo Itae(劉以泰), Sugjong's medical doctor are a same person through analysis of Geochang Yoo's genealogy, articles,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Seungjeonilgi, Taeweonseonsaengan, Sancheong-gun's paper, Sancheong Hyanggyo's paper, Sancheong-gun's paper, The geographic paper, Dongyuhagan, Sawoo Munjib, and analysis of folk story, the wrote year of his Marjinyeon and Inseomkyunrok and his birth year. According to my analysis, Yoo Itae(劉爾泰), the Marjinyeon's author and Yoo Itae(劉以泰), Sugjong's medical doctor are a same person. And Marjinyeon is written in 1696, the year of Byongja, and other his books, Inseomkyunrok at 1709, the year of Gichug. In conclusion, Yoo Itae(劉以泰, 劉爾泰) was a famous medical doctor at Sancheong, born in 1652 (HyoJong the 3rd year) and passed in 1715 (SugJong the 41th year), left books of Marjinyeon, Silheomdanbang, and Inseomkyunrok.

Key words : Yoo Itae, Marjinyeon, Shilheomdanbang, Inseomkyunrok, Medical Histor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 서론

조선에서는 조선인을 치료한 수많은 명의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지역 명의들의 활동상은 구전설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는데, 서울의 허준(許浚), 경상도의 유이태(劉以泰, 劉爾泰), 함경도의 이경화¹⁾, 제주의 진좌수, 진도의 추명의 등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의들이다.

그런데 유독 경상도의 유이태는 학계와 일반 사회에서 통일된 이름을 정리하지 못한 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활동지가 동일한 인물이

音異意(字)의 한자 이름, 즉 유이태(劉以泰)와 유이태(劉爾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이태(劉以泰, 劉爾泰)라는 인물이 학계에 발표되는 과정에서 드라마 <집념>, <소설 동의보감>과 드라마 <허준>을 통해 알려진 허준의 스승 유의태(柳義泰)²⁾와 혼선을 빚으면서 불거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김중권의 劉以泰와 劉爾泰가 다른 사람이라는 논문 발표로 劉以泰와 劉爾泰가 동일인 여부로 옮겨 붙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이태(劉爾泰)는 麻疹篇을 저술하였다. 마진(麻疹)은 홍진(紅疹) 또는 홍역(紅疫)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홍역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나는 급성발진성 전염병이다. 예로부터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걸리는 전염

접수 • 2012년 11월 11일 수정 • 2012년 11월 24일 채택 • 2012년 11월 28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 02-961-0671 Fax :02-961-0671 E-mail : southkim@khu.ac.kr

1) 이경화(李景華) : 1790년(정조 14) 광제비급(4권 4책, 목판본)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함경도관찰사 이병모(李秉模)가 이 지방 사람들이 의로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구료(救療)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경화에게 이 책을 편찬하게 하였다.

2) 유의태(柳義泰). 소설 동의보감의 허준 스승.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창작과 비평사, 1990년 2월 25일. 47p.
“버들 유(柳) 울을 의(義) 클 태(泰)의 유의태라는 함자이옵니다.”

병으로 알려져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麻疹은 痘瘡과 함께 조선조의 주요 역병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또한 많아서 국가적인 치료책을 마련하기도 했다³⁾.

東醫寶鑑에서 麻疹(홍역)과 痘瘡(천연두)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여 박진희⁴⁾의 痘瘡經驗方과 같은 전문의서들이 출간되었다. 이처럼 홍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조선후기에 나오기 시작했다. 두(痘)와 마진(麻疹)이 유사하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두(痘)는 음(陰)에 속하고 장(臟)에 속하는데 반해 진(疹)은 양(陽)에 속하고 장(腸)에 속한다고 하였다. 특히 숙종대 후반 이후 홍역의 발생이 급증하기 시작

하면서 오히려 천연두보다는 홍역이 나라의 문제가 되었고, 홍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홍역을 치룬다는 이야기 등이 아마도 조선후기에 생긴 말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17세기에 들어와 麻疹이 유행하자 麻疹 전문의서 저술이 있었고, 저술된 책은 유이태(劉以泰 劉爾泰)의 麻疹篇 이외에도 1728년에 졸(卒)한 任瑞鳳⁵⁾의 壬申疹疫方⁶⁾, 李獻吉의 麻疹奇方(1745, 영조 51년)⁷⁾, 丁若鏞의 麻科會通(1798, 정조 22년)⁸⁾, 李元豐의 麻疹彙成(1798, 정조 22년)⁹⁾, 경상도 칠곡의 박상돈(朴尙敦)¹⁰⁾의 疹疫方 충청도 진천의 남기복(南紀復)¹¹⁾ 疹疫方 등이 있다.

- 3) 재인용 김호, 한국전염병사 제5장 조선시대후기. 대한감염학회, 군자출판사. 2009년 10월 15일. 270p.
『일성록』 1786년 5월 27일
『일성록』 1786년(정조10) 4월 27일. 1786년 4월 22일~26일
『일성록』 1786년(정조10) 5월 8일. 1786년 5월 3일~7일
『일성록』 1786년(정조10) 5월15일. 1786년 5월 8일~14일
『일성록』 1786년(정조10) 5월 20일. 1786년 5월 15일~19일
『일성록』 1786년(정조10) 5월 25일. 1786년 5월 20일~24일
『일성록』 1786년(정조10) 5월 30일. 1786년 5월 25일~29일
『일성록』 1786년(정조10) 6월 15일. 1786년 6월 10일~14일
『일성록』 1786년(정조10) 6월 25일. 1786년 6월 20일~24일
『일성록』 1786년(정조10) 6월 29일. 1786년 6월 25일~29일
- 4) 두장경험방(痘瘡經驗方). 조선 중기 박진희(朴震禧)가 저술한 두창(痘瘡: 천연두) 치료 의서(醫書).
- 5) 任瑞鳳. 1669?~1728. 통훈대부행 효능참봉건원사능직장 묘 이천 부발면 백록동.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 91p.
- 6) 임신진역방 저술년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두중은 “임신년의 병증을 관찰한 기록이다.”라고 하였다. 任瑞鳳은 영조 1728년 무신란에 연루되어 1728에 죽었다. 풍천임씨 목사공파 족보를 토대로 任瑞鳳은 1669? ~ 167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임서봉 아들 임응희도 의원이다. 그가 1752년 임신년 마진 대유행을 경험한 것을 아버지 임서봉의 이름으로 저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 7) 李獻吉(1738~1784), 조선 후기 의학자. 자는 몽수(夢叟) 또는 몽수(蒙叟), 호는 완산(完山). 경기도 남양 출생. “蒙叟 李獻吉의 생애와 학술계통”, 한국사학회지 19권 1호. 2006.
- 8) 마과회통(麻科會通). 정약용이 천연두와 홍역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중국과 조선의 의학서를 분석 종합한 의학서. 이몽수 마진방 외에도 임서봉(任瑞鳳) 임신방(壬申方), 허준(許浚) 벽역신방(疫神方), 조정준(趙廷俊) 급유방(及幼方), 이경화(李景華) 광제비급(廣濟濟)이 수록되어 있다. 총론에는 중국 마진서의 서(序)와 제론(諸論)들을 발췌하였고, 제가(諸家)의 인용서목을 들었다. 원증편(原證篇) 17, 인증편(因證篇) 16, 변사편(辨似篇) 12, 자이편(資異篇) 16, 아속편(我俗篇) 9, 오견편(吾見篇) 16, 합제편(合劑篇) 20 등 7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아속편과 오견편에서는 한국에 유행한 마진의 증세를 관찰하여 치료법 상세히 기술. 부록 <신증중두기법(新證種痘奇法)>의 1편에 E.제너의 우두방(牛痘方)을 줄여 소개하였다.
- 9) 이원풍(李元豐) 1759년(영조 35) ~ 미상. 자 대유(大有), 호 요산주인(樂山主人), 조선 정조 때 의학자. 본관 남원. 1777년(정조 1) 한어(漢語)에 능하여 역과(譯科)에 합격. 의약동참지추(議藥同參知樞)를 지냈다. 홍역의 치료법에 대한 전문 의학서인 《마진회성》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10) 박상돈(朴尙敦). 생몰미상. 본관 미상. 경상도 漆谷 上枝面 深川里) 영조와 정조 때 민간 의사. 저서 《진역방(疹疫方)》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정조실록 10년 병오(1786) 5월 28일. 경상도 관찰사 鄭昌順과 충청도 관찰사 金光默이 칠곡 사람 박상돈(朴尙敦)과 진천 사람 남기복(南紀復)이 엮은 《疹疫方》을 올렸다.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약을 지급하고 의원을 구하는 일이 어찌 헤택만 널리 주는 것이겠는가? 백성의 수명을 늘리려는 데에 뜻이 있다. 두 도신의 장계를 보니, 《진역방》을 바친 사람이 있다.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하여 처음보다 못하다는 탄식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즉시 모양으로 하여금 원방(原方)을 양의사(兩醫司)로 나누어 보내고 이어서 의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하여 보고하게 하라.”하였다. 헤민서에서 아뢰기를, “충청도의 의방(醫方)은 그 총론이 사용에 융통성이 있는 법이 아니므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한다는 것은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의원이 논한 것은, 그 증세를 논하고 약을 쓰는 것이 전적으로 고방(古方)인 《두과회편(痘科彙編)》과 《마진치법(麻疹治法)》을 위주로 하여 가감한 것인데, 허실(虛實)을 분별하고 시중을 지적하였으며, 잡증(雜症)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상하였습니다. 비록 신기한 처방은 아니지만 즉히 통행할 수 있는 활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이것을 중복하여 반포할 것이 없고 여러 도의 치성한 곳에 지금 반포하면 유익하면 하였지 해는 없을 것입니다. 즉시 양의사로 하여금 한문과 연문을 섞어 번역하여 팔도에 내려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조실록 10년 병오(1786) 5월 28일.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5월 27일/50월 29일
- 11) 남기복(南紀復 : 생몰미상). 진천출신. 거주 : 죽산(竹山) 본현(本縣) 이곡면(梨谷面) 장양촌(長楊村). 경상도 관찰사 鄭昌順과 충청도 관찰사 金光默이 칠곡 사람 박상돈(朴尙敦)과 진천 사람 남기복(南紀復)이 엮은 《疹疫方》을 올렸다.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약을 지급하고 의원을 구하는 일이 어찌 헤택만 널리 주는 것이겠는가? 백성의 수명을 늘리려는 데에 뜻이 있다. 두 도신의 장계를 보니, 《진역방》을 바친 사람이 있다.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하여 처음보다 못하다는 탄식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즉시 모양으로 하여금 원방(原方)을 양의사(兩醫司)로 나누어 보내고 이어서 의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하여 보고하게 하라.”하였다. 헤민서에서 아뢰기를, “충청도의 의방(醫方)은 그 총론이 사용에 융통성이 있는 법이 아니므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한다는 것은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의원이 논한 것은, 그 증세를 논하고 약을 쓰는 것이 전적으로 고방(古方)인 《두과회편(痘科彙編)》과 《마진치법(麻疹

麻疹篇 저자 유이태(劉爾泰)가 조선 후기에서부터 근현대 이후 출판물 문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1934년 진주 회춘헌 약방의 박주헌이 발간한 목판본 麻疹篇 발간사¹²⁾이다. 그 다음으로 1962년 일본인 미키 사카에(三木 榮)의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朝鮮醫學史及疾病史)¹³⁾』이다. 그 후 1966년 김두종의 ‘한국의학사¹⁴⁾’에서 정조대 명의, 1982년 행우서옥 ‘장서목록’¹⁵⁾, 1987년 김신근의 ‘한의학서고’¹⁶⁾에서 정조대 명의, 2000년 손홍열 ‘조선후기의 醫書編纂’¹⁷⁾에서 숙종·영조 시대 명의, 2008년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¹⁸⁾과 산청의 한의학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¹⁹⁾,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번역하여 출간한 국역 실험단방²⁰⁾이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로는 2012년 김중권이 劉爾泰와 劉以泰는 同名異人이며 麻疹篇을 저술한 劉爾泰는 헌종대의 名의라고 발표한 바 있다.²¹⁾

그러나 김중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麻疹篇의 저술 시기는 물론, 劉爾泰와 劉以泰의 동일인 여부에 관해

서도 정밀한 논거에 바탕을 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정조대 또는 헌종대에 麻疹篇이 출간되었다고 주장한 문헌들이나 추정된 논문들 역시 그 근거가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麻疹篇과 함께 저술된 實驗單方, 麟西聞見錄의 저술연대를 바탕으로 麻疹篇의 저술연대를 다시 추정하는 한편, 각종 문헌자료, 거창유씨 가문에 이름 두 개의 이름 사용 사례, 사우 문집에서 以泰와 爾泰를 사용한 근거를 토대로 하여 麻疹篇 저자 劉爾泰가 숙종 御醫 劉以泰와 동일 인물임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허준의 스승으로 알려진 유의태(柳義泰)와 실존인물 유이태(劉以泰, 劉爾泰)의 비교 고찰은 제외하였고 추후 논문에 유이태(劉以泰, 劉爾泰)와 유의태(柳義泰)를 논할 예정이다.

治法)》을 위주로 하여 가감한 것인데, 허실(虛實)을 분별하고 시중을 지적하였으며, 잡증(雜症)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상하였습니다. 비록 신기한 처방은 아니지만 족히 통행할 수 있는 활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이것을 중복하여 반포할 것이 없고 여러 도의 치성한 곳에 지금 반포하면 유익하면 하였지 해는 없을 것입니다. 즉시 양의사로 하여금 한문과 언문을 섞어 번역하여 팔도에 내려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조실록 10년 병오(1786) 5월 28일.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5월 27일/50월 29일

- 12) 유선생은 우리 조선반도의 명이다. 세상을 떠난지 몇 백년이나 되었는데도 천민이나 아이들까지 아직도 그의 명성을 말하고 있으니 당시 선생의 덕망과 의술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선생의 유적이 보존되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여겨왔다. 지금부터 20여년전 어떤 손님이 나를 찾아와 한권의 책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선조의 유적이며 의원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므로 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요. 나는 불초한 후손으로 집안은 가난하고 무식하오 그러나 선조의 유교가 어떤 물건인데 먼지 쌓인 상자에 넣어두어 낡고 좀 먹은 책이 되게 하겠소. 만약 집안에서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면 차라리 뜻있는 의원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니 오늘 특별히 선생을 만나러 온 것이요 라고 하였다. 나는 유선생의 유적이라는 말을 듣고 정성스럽게 받아들고 읽어 보았다. 그 내용은 선생께서 평생에 경험하신 마진 치료법을 저술한 것이니 이로부터 선생의 고명하신 경력을 알 수 있었다. 대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마진의 치료법은 미비점이 많았는데 이 책은 마진을 처음 앓을 때부터 만진이 솟고 걷히며 기타의 잡증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통틀어 설명하고 조목별로 해설하였다. 또한 책을 펼치면 환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보배였다. 내가 이 책을 얻은 뒤 20년 동안 시험해 본 것이 많은데 증세에 따라 약제를 투여하면 들어맞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어찌 보통의 책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생각건대 선생의 유적을 먼지 속에 묻어둘 수 없으며 세상에 남긴 공덕은 널리 어수선한 세상을 구제하는 것만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책으로 만들어 널리 전하노니 이를 유념하여 깊이 새겨 열람해 본다면 의학의 보배가 될 뿐 아니라 병을 앓는 집안의 중요한 明鑑이 될 것이다. 또한 세속에서 자손을 기르는 요체가 되지 않겠는가? 경오년 동지달 후학 박주헌 씀

劉先生即我朝鮮半島之名醫也沒後幾百年與擡兒童尙稱其名當時先生之德廣術高下想之然余常恨先生之遺蹟不存矣自效二十餘年前客有過我袖示一券書曰比即吾先祖之遺蹟眞醫家之所貴重故來傳於子而如我不肖後裔家貧蔑學先世遺稿未知何等件物拖置塵箱竟屬冗篇蠹章而已如其不得家藏不若歸之於謹慎醫家今日特來見子云矣余聞劉先生之遺蹟乃盥手拜受而讀之是先生平素之癩疹經驗方著術者而先生之高明精力從比可知矣蓋癩疹治法溯古未備者因癩疹之古無而今有也一見比編疹之始痛發斑消斑其他雜症之治法通達言論條條縷解可以開卷瞭然眞罕世之寶余之得比後二十餘年所試者不爲不博而對症投劑發無不中豈可尋常書編可比哉自想先生之遺蹟不可泯沒於塵臼之中遺世公德莫如廣濟於劫海之上茲將付之手民傳之以博幸望留(置)心熟閱則非但醫界之爲寶寔要病家之明鑑抑非人世間有養之要訣歟歲在庚午至月後學朴周憲謹記

- 13) 미키 사카에 朝鮮醫書誌 『인서관문록』은 미키사카에(三木榮)가 『朝鮮醫書誌』에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2책의 사본을 소개하고 麟西라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194조의 병증으로 나누어 적었다고 설명하였다. 또 그는 “일반적으로 유포되고 경험방 또는 문경방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들 중에는 단순히 비망기와 같은 것들이 많지만 이 책은 이러한 경험방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것에 속한다.”라고 하여 그 내용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책의 내용으로 보아 純祖년간에 저술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 14) 김두종(金斗鍾).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년(상, 하권 합본):404p
- 15) 杏雨書屋 藏書目錄. 財團法人 武田科學財團. 1982년(소화57년). 6월 10일:827p. 924p.
- 16) 김신근. 한의학서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425~427p. 774p.
- 17) 손홍열. 조선후기의 醫書編纂 - 영정조대를 중심으로. 충북사학 제11.12합편. 충북사학회 2000 : 320 ~ 321p
- 18)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 2008. 05:71,102~104,157p.
- 1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2009. 산청의 지방의학의 학술적 가치. 유이태 마진편. 산청군/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88, 190~193, 196~198p.
- 20) 국역 실험단방. 해제보기.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12. 31
- 21) 김중권. 마진편의 저술시기 분석. 서지학연구 제51지1(2012.6). 303~313p.

II. 본론

1. 기록에 나오는 유이태(劉以泰)

1) 居昌劉氏 족보에 나오는 劉以泰

劉以泰의 本貫은 居昌, 자는 백원(伯源) 호는 신연당(新淵堂) 음계로 通德郎이다. 거창 위천 사마리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外家가 있는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로 이거하여 의술활동을 폈다. 거창유씨가문에서 최초로 발간된 족보²²⁾에서부터 최근에 발행된 거창유씨족보²³⁾ 등 모든 족보에 그의 出生年度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沒年(沒年)은 乙未(肅宗 41, 1715)년 2월 27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며 선행을 하였고 의술에 밝아 중국 천자의 병을 치료하였다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술과 중국 천자의 병을 치료한 기록은 1933년 癸酉譜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는 백원이고 호는 신연당이다. 통덕랑을 지냈다. 재질이 비범하였다. 의학에 매우 밝아 마음은 항상 소탈하였으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천거되어 중국으로 가서 천자의 병을 치료하고는 특별히 금자광록대부이부상서의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고사하여 받지 않고 조선으로 돌

아왔다. 또 효행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이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다. 을미 2월 27일 졸하였다. 묘는 산청 서 모음 명주동에 무자로 안장되었다²⁴⁾.

字伯源號新淵堂通德郎才質超凡醫學極明心常爲賤而名自鳴世薦入皇朝以治天子之病而特授金紫光祿大夫吏部尚書固辭不受歸本國且以孝行純至有鄉道狀乙未二月二十七日卒墓山清郡西毛音名珠洞戌坐

2) 유이태 가계

유이태는 시조 문양공 유전(劉筌)의 19세손이다. 10대조 영계(劉權²⁵⁾)은 고려에서 감찰을 지냈다. 9대조 劉羣²⁶⁾은 청백리로 용군현감, 8대조 劉恒²⁷⁾은 전서령겸훈원주부, 7대조는 劉貴孫²⁸⁾은 양령대군의 손서로서 증자헌대부병조판서어해장군용양위부호군, 6대조 劉羣²⁹⁾은 장사랑기자전 참봉, 5대조 劉友閔³⁰⁾은 忠順衛彰信校衛를 지냈다. 고조부(高祖父)는 鄭仁弘³¹⁾으로부터 사사 받았고 丁酉再亂시 안음 현감 광준³²⁾, 전함양군수 조종도³³⁾와 함께 부인 초계정씨³⁴⁾와 같이 안의 황석산성에서 순절한 의병장 劉名蓋³⁵⁾로 나라에서 감찰로 추증되었다³⁶⁾. 東國輿地勝覽, 海東三綱錄, 東儒學案, 전고대방, 안의읍지에 등재되어 있고 안의 황암사에 제향되었다. 조부 劉有道³⁷⁾는 僉知로서 通政大夫이며 효자(孝子)로써 나라에서 복호를 받았고 東國輿地勝覽

22) 거창유씨족보, 己丑譜, 1769년. 列

23) 거창유씨족보, 1988.

24) 거창유씨족보, 1988. 24~25p

25) 유환(劉權, 1337 ~ 1409) 字國老, 號澹溪, 麗末登文科 通訓大夫司憲府監察, 登安義誌, 配강양이씨, 父參判이원달.

26) 유담(劉羣) 通訓大夫司憲府監察行龍宮縣監, 登安義誌, 清白立生祠登安義誌 配성주이씨 父이지활 [李智活, 1434~?]

27) 유항(劉恒) 通訓大夫 典牲署令兼訓練院主簿 登安義誌, 配달성구씨 父재령군수 인태, 曾祖 구성로(具成老)

28) 유귀손(劉貴孫) 通政大夫 忠武衛禦海將軍 行龍驤衛副護軍 贈資憲大夫 兵曹判書 登東儒學案登安義誌, 配전주이씨 父長平副正이흔(李訥), 祖父安령대군 이강, 曾祖공정대왕 이방원

29) 유관(劉羣) 將仕郎箕子殿參奉, 登安義誌, 配함양조씨, 父함양군수 조영손, 5代組 조연(趙淵, 1374~1429)

30) 유우민(劉友閔) 字孝叔, 彰信校尉, 登安義誌, 配礪山宋氏 妻父 동훈대부驍

31) 정인홍(鄭仁弘), 1535년(중종 30)~1623년(인조 1). 본관 서산(瑞山). 자덕원(德遠), 호내암(來庵). 함천(陝川) 출신. 조선 중기 학자·의병장·정치가. 증조부 정희(鄭禧), 조부 정언우(鄭彦佑), 부 경건(鄭健). 曹植 수제자 최영경(崔永慶)·오건(吳健)·김우용(金宇顛)·곽재우(郭再祐) 등과 함께 경상우도 남명학파(南冥學派) 대표. 1573년(선조 6) 6품직, 1575년 황간현감, 1576 지평, 1581년 장령. 1592년 임진왜란. 영남의병장. 1602년 대사헌. 동지중추부사·공조참판. 1612년(광해군 4) 우의정, 1613년 서령부원군(瑞寧府院君). 1618년 영의정. 저서 《내암집》.

32) 광준(郭棣, 1550~1597), 본관 현풍(玄風). 자 양정(養靜). 호 존재(存齋). 시호 충렬(忠烈). 조선 중기의 문신. 정유제란 때 안음현감으로 황석산성에서 순절. 兵曹參議 추증, 안의(安義) 황암사(黃巖祠), 현풍 예연서원(禮淵書院) 배향되었다. 문집 《존재실기(存齋實記)》. [출처] 두산백과

33) 조종도(趙宗道) 1537(중종32)~1597(선조30). 조선 중기 문신. 본관咸安. 자伯由, 호大笑軒. 시호忠毅. 단성현감, 함양군수. 증이조판서. 1597년 정유제란 안음 현감 광준, 안음좌수 유명개와 황석산성 순절. 함안 덕암서원(德巖書院), 안의 황암서원(黃巖書院)에 제향. 저서 《대소헌집》.

34) 父：叔,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35) 유명개(劉名蓋 1548~1597. 字 顯普), 贈監察 義兵將 丁酉再亂黃石山城 殉節, 안의黃巖書院 제향. 登承政院日記, 登東國輿地勝覽, 登海東三綱錄, 登東儒學案 登安義誌, 登存齋實記 生父 友參(문과급제, 行선교량義禁府道事正德, 가정대부), 配초계정씨, 父증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경경연참찬(淑)

36)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경진(1880, 6. 5월25일). “고 진사 張孝鑣에게 감찰을 추증하고, 고 학생 劉名蓋에게 감찰을 추증하였는데, 이상은 충효(忠孝)가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에게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은 것이다.”

37) 劉有道(字 子見, 號 이탄, 1600~1683, 僉知, 孝行純至, 自朝家有復戶典 登東國輿地勝覽), 동계 정은 제자

및 안의읍지에 등재되어 있고, 桐溪 鄭蘊³⁸⁾의 제자이다. 부친 劉潤祺³⁹⁾는 護軍으로 通政大夫이다. 外家は 江陽李氏로서 산청군 생초면 新淵 이다. 외증조부는 정유재란시 광재우와 의병활동을 한 의병장으로서 유호립 난을 평정하여 寧社功臣一等功臣으로 초계현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를 지냈고 가선대부 병조판서로 추증된 李義立⁴⁰⁾이고, 외조부(外祖父)는 조산대부 봉상사판관 李光勳⁴¹⁾이다. 妻家は 창령조씨로 거창 위천 원학이다. 처조부(妻祖父)는 단양군수를 지낸 曹崑壽⁴²⁾이고, 처부(妻父)는 성현도찰방을 지낸 曹益暉⁴³⁾이다. 劉以泰의 친가, 외가, 처가 등은 산청, 거창, 함양, 함천, 진주, 창령 등에서 오랜 동안 鄉班의 지위를 누리던 가문이다.

3) 王室記錄에 나오는 劉以泰

劉以泰 관련 기록은 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太醫院先生案. 議藥同參先生案에 실려 있다. 숙종실록에는 劉以泰가 전주에서 칭병하고 한양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⁴⁴⁾ 실제로는 劉以泰가 나라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한양을 도착하지 못하여 벌을 주라는 내용이다. 劉以泰는 한양 방문 길을 재촉하다가 넘어져서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도착한 것이다⁴⁵⁾. 승정원일기 숙종 36년⁴⁶⁾ 1710년 1월 21일과 숙종 39년⁴⁷⁾에 劉以泰가 한양을 방문한 기록은 기록되어 있다. 劉以泰는 숙종 36년 한양에서 도착하여 한성 좌윤 조태로(趙泰老)⁴⁸⁾ 등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숙

- 38) 정은(鄭蘊 1569 ~ 1641), 본관 초계(草溪), 자 휘원(輝遠), 호 동계(桐溪)·고고자(鼓鼓子), 호 문간(文簡), 저서 《동계문집(桐溪文集)》, 경남 거창군 출신. 부 진사 정유명(鄭惟明). 남명 조식 학맥. 한강((寒岡) 정구(鄭述) 문하 수학. 1610년(광해군 2) 문과 급제. 설서(說書)·사서·정언. 1614년 부사직(副司直)으로 재임시 영창대군(永昌大君) 처형 부당함 상소 주장하다가 제주도 대정(大靜) 10년간 위리안치 유배생활. 1623년 인조반정후 헌납, 사간·이조참의·대사간·경상도관찰사·부제학 등 역임,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으로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적화(斥和) 주장. 영의정 추증,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제주 굴림(橋林)서원, 함양(咸陽) 남계(藍溪)서원 제향. 저서 《동계문집(桐溪文集)》 [출처] 정은 | 두산백과
- 39) 劉潤祺(字汝膺 通政大夫 護軍. 묘 산청 서모 명주동 西坐. 配강양이씨. 妻父봉상사판관 이광훈. 曾祖 慶尙左水使 李義立
- 40) 李義立 1562년(명종 17)~1642년(인조 20). 조선 중기 무신. 본貫 江陽. 字 直甫. 山陰 출신. 광재우와 의병활동. 1594년(선조 27) 무과 급제. 1622년(광해군 14). 첨지중추부사. 초계군수, 가선대부 경상좌도수군절도사 병조판서겸동지감부사 추증. 그의 글씨 규장각 소장. 묘 산청군 생림 안처동
- 41) 李光勳(1613년-광해5년) ~ 1678년(숙종14년) 字子益 號 龔窩. 奉常寺判官
- 42) 曹益暉(1616 ~ 1669). 字子文. 奉直郎 省峴道察訪 창령조씨 忠翊公文澤派族譜
- 43) 曹崑壽. 字頤叟 奉直郎 丹陽郡守 창령조씨 忠翊公文澤派族譜
- 44) 숙종실록 숙종 54권, 39년(1713 기사) 12월 16일
“己丑/憲府論: “嶺南醫人劉以泰, 自內局催促, 而行到全州, 稱病不進, 終乃還家, 假蹇圖便, 合置重典. 請拿問嚴覈處之. 道臣所當催促上送, 而頗報內局, 任其徑還, 請從重推考.” 從之“
- 45) “우리 왕이 지난 날 (병세를) 예측하지 못하였을 때 공이 말을 달려 서둘러갔다. 추위가 대단한데 강행하다 병에 걸려 흔들흔들하다 넘어져 기한이 정해진 여행길이 지체되었다. 황급히 刑吏에게 갔는데 잘못을 용서하고 은혜를 입어 西班牙의 보직을 받게 되었다. 내의원의 일을 돕는 책임을 맡아 국궁하고 악의 순서를 의논하였고, 헌신하여 악을 의논하며 초췌하게 주야를 다투었네.” 右鄭泰奉重元. 유이태 문집
吾王向不豫, 自公催馳馳, 隆寒強衰疾, 撼顛顧程遲, 惶怖就廷尉, 赦荷荷鴻私, 遂許西班牙補, 責以內院裨, 鞠躬議藥列, 憂悴日夜寐
- 46) 숙종 36년 1월 21일 (정해) 1710년
頤命曰:(중략) 山陰縣居劉以泰, 牙山縣監愼禹定, 安東士人朴泰初, 醫術皆精詳, 而愼禹定·朴泰初, 則曾前亦以議藥, 入參藥院, 雖不可使之入診, 而速令上來, 以爲議藥時, 論症商確之地, 何如? (중략).上曰, 依爲之.
- 47)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12월 16일 1713년
新啓, 藥院, 頃以嶺南醫人劉以泰, 議藥同參事, 使之上來, 而以泰行到全州, 稱病不進, 自內局累度催促, 而視之尋常, 略不動念. 設令有病, 惟當寸寸前進, 而及到中路, 終乃還家, 當此聖候, 閱月未寧, 臣民憂邊之日, 渠雖遐方無識之人, 苟有一分嚴畏之心, 則假蹇圖便, 安敢若是? 事之痛駭, 莫此爲甚. 論以王法, 合置重典, 請劉以泰, 令攸司拿問嚴覈處之. 劉以泰, 行到全州營下, 托以有病, 假臥不起, 道臣所當催督上送, 而只據其呈狀, 頗報內局, 拖引時月, 任其慢蹇, 終至於徑歸其家, 事體道理, 豈容如是? 不可無警責之道, 請當該監司, 從重推考. 引嫌而退. 拘囚府隸, 所失在彼, 以此引嫌, 無已太過, 請掌令趙鳴鳳出仕. 答曰, 不允. 末端事及處置, 依啓.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12월 20일(기사) 1713년
今日藥房入診時, 醫人劉以泰, 卽爲放釋, 令該曹口傳付軍職, 同參議藥事, 榻前定奪.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12월 20일(기사) 1713년
兵曹口傳政事, 副司勇劉以泰.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04월 09일(경진) 1714년
藥房入診時, 都提調李頤命, 提調趙泰考, 副提調俞命雄, 儒川君淵, 假注書權益淳, 記事官黃奎河·崔尙履, 副司勇權平, 醫官金有鉉·柳瑞·丁時梯·權聖經·劉以泰入侍.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06월 20일(경인) 1714년
頤命曰, 劉以泰, 有名於湖·嶺間, 故啓下議藥同參矣. 其術業, 雖無出人之見, 而亦不妄下藥, 爲人淳厚可使, 而但年老, 有痰火痼疾, 終夜呻吟, 傍人不堪, 又未經痘云, 其情勢誠可愍念矣. 特爲減下, 使之下去, 何如? 上曰, 依爲之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06월 24일(갑오) 1714년
備忘記, 今番未寧時, (중략) 劉以泰 (중략), 各兒馬一匹
- 48) 조태로(趙泰老), 1658~1717. 본관 양주(楊州). 자 인수(仁叟). 호 지산(地山). 1696년(숙종 22) 정시文科 병과 급제. 1699년 홍문록(弘文錄), 1706년 강원도관찰사. 대사성·이조참의·개성유수, 부제학. 관료선발에 문벌 중시하고 색목(色目)에 구애되어 편용(偏用)이 많은 것을 보고 수재제품(隨才題品)할 것 건의. 1717년 평안도관찰사. 장신풍간(長身豐幹)하고 충후관위(忠厚寬偉)하여 사람들이 장자(長者)라 불렀다. [출처] 두산백과/네이버
- 49) “옛날부터 알고 지내다 전해(1714년)에 다시 만났는데.” “話舊前年重會面” 左尹 趙泰老. 신연당 유이태 문집

중 40년을 숙종 병을 치료한 功勞로 말 1필⁵⁰)과 비단⁵¹)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약동참선생안에 유이태는 승록대부 안산군수⁵²)로 기록되어 있다.

4) 문헌에 나오는 劉以泰와 劉爾泰

劉爾泰가 현종조 명의라는 김종권 주장은 있으나 이에 관한 역사적 사실 기록은 전혀 없다. 다만 그의 이름이 기록된 문헌은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 뿐이다. 麻疹篇 저술 년도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하고, 實驗單方의 異種 麟西聞見錄에서도 저술연도가 다르게 나타나 있다. 그의 저서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 등에는 號, 著書 著述年度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에 나오는 이름, 號, 著述年度, 序文과 處方을 분석하여 同一人 여부와 저술연도 및 활동여대를 밝혀야 한다. 유이태(劉以泰.劉爾泰)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출전을 정리한 표이다.

표 1. 문헌에 나타난 유이태(劉以泰)

연도	이름	출전	비고
1710년	유이태 (劉以泰)	승정원일기 ⁵³)	왕실기록
1712년	유이태 (劉以泰)	劉以泰 증영장 ⁵⁴)	지방지 사우 추천장
1713년	유이태 (劉以泰)	숙종실록 ⁵⁵)	왕실기록
1713년	유이태 (劉以泰)	승정원일기 ⁵⁶)	왕실기록
1714년	유이태 (劉以泰)	승정원일기 ⁵⁷)	왕실기록
1714년	유이태 (劉以泰)	태의원선생안.의약동참선생안 ⁵⁸)	어의명단 기록
1715년	유이태 (劉以泰)	劉以泰 묘비 ⁵⁹)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명주동
1716년	유이태 (劉以泰)	묵재집(默齋集) ⁶⁰)	사우 문집
1719년	유이태 (劉以泰)	劉以泰 효행/선행장	지방지 사우 추천장
1725년	유이태 (劉以泰)	승정원일기 ⁶¹)	왕실기록

50) 숙종 40년/ 06월/24일(갑오) “備忘記, (중략) 劉以泰, 各兒馬一匹.”

51) 정종원 신연당 유이태 문집. “上賞歸金貂.”

52) 의약동참선생안. “劉以泰安山崇祿”

53) 承政院日記. 1710년 숙종 36년/ 01월/21일(정해). 1710년 숙종 36년/ 02월/11일(병오)

54) 閔斗參 99명 연명

55) 肅宗 54卷, 39年(1713 癸巳) 12月 16日

“嶺南醫人劉以泰, 自內局催促, 而行到全州, 稱病不進, 終乃還家, 偃蹇圖便, 合置重典. 請拿問嚴覈處之. 道臣所當催促上送, 而頤報內局, 任其徑還, 請從重推考.” 從之.

56) 承政院日記 1713년 숙종 39년/ 12월/16일(기축). 1713년 숙종 39년/ 12월/20일(계사)

57) 承政院日記 1714년 숙종 40년/ 04월/09일(경진). 1714년 숙종 40년/ 06월/20일(경인). 1714년 숙종 40년/ 06월/24일(갑오). 1725년 영조 원년/ 05월/28일(을축)

58) 太醫院先生案.議藥同參先生案. “劉以泰安山崇祿”

59) 居昌劉氏族譜. 1988년:289~292p.

60) 양처제(梁處濟. 1643년(인조 21) 5월 14일~1716년(숙종 42) 12월 5일. 조선 후기 유학자. 자 季通, 호 默齋. 본관 남원, 동몽교관(童蒙敎官). 경남 咸陽 출생. 玄石 朴世采와 명재(明齋) 윤증(尹拯)을 사사하여 학문의 요지와 비결을 얻었다. 저서 《묵재집(默齋集)》.

61) 承政院日記. 1725년 영조 원년/ 05월/28일(을축)

62) 조선환여승람 산청편. 충남 公州 유학자 이병연(李秉延:1894~1977)이 조선시대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과 《대동지지》(1864)를 바탕으로 1910년부터 100여명 동원, 12년 동안 전국 13도 229개군 가운데 129개군을 직접 조사하여 편찬한 백과사전적인 지리서

63) 東儒學案. 진주 출신 회봉 하경진이 영남학과 맥을 이은 유학자로 선배 유학자의 학술과 덕행을 고찰할 문헌. 1938년 착수 1943년 완성.

64)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간행한 전국 구비문학자료 조사보고서. 82책, 부록 3책 (유형 분류 및 색인). 1979년 ~ 1985년 걸쳐 조사 작업, 1980년~1992년에 간행되었다.

65) 산청향교지. 1991 2월 : 30p

66) 거창군사편찬위원회. 1997. 06 : 210p.

67) 박종섭. 거창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문창사. 1997. 08 : 64~69p.

68)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년 4월 20일 : 107~108, 258p.

69) 안동준. 진주 옛이야기. “김덕령이 진주를 지킨 까닭”. “명의도 못 고친 병을 고친 효자”. 지식산업사. 2003

70) 대구사학회편. 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 푸른역사. 2005. 12. 20일: 268~274p

71) 산청군지. 제5편 성씨와 인물. 2006년 5월:994p.

72) 김호. 삼림출판사. 2007. 02. 20일: 50~61p.

73) 이규근. ‘조선 후기 내의원 연구’. 2007년 6월:157p

74)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2:50~61p.

75)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 2008.5:157~158p.

76)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2009. 산청의 지방의학의 학술적 가치. 유이태 마진편. 산청군/한국한의학회연구원 2009:188, 191~192, 196, 245p.

77)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들녘. 2011. 02:255p.

78) 오준호, 박상영, 안상우. ‘왕실기록과 의서 속에 나타난 유이태의 행적. 한국한의학회논문집 제17권 1호. 2011년 3월:1~10p.

1769년	유이태 (劉以泰)	거창유씨 기축보	최초 발간된 족보
1910 ~1937	유이태 (劉以泰)	조선환여승람 ⁶²⁾	지리지
1943년	유이태 (劉以泰)	동유학안 ⁶³⁾	유학자 학술과 덕행 고찰 문헌
1980 ~1982	신연당 유이태	한국구비문학 대계 ⁶⁴⁾	구전설화
1991년	유이태 (劉以泰)	산청향교지 ⁶⁵⁾	지방지 인물편
1997년	유이태 (劉以泰)	거창군사 ⁶⁶⁾	거창군 역사
1997년	유이태 (劉以泰)	거창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⁶⁷⁾	역사와 전설, 설화
2000년	유이태 (劉以泰)	일지사 ⁶⁸⁾	김호 박사학위 논문
2003년	유이태 (劉以泰)	진주 옛이야기 ⁶⁹⁾	설화
2005년	유이태 (劉以泰)	대구사학회편 ⁷⁰⁾	인물열전 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
2006년	유이태 (劉以泰)	산청군지 ⁷¹⁾	지방지 인물편
2007년	유이태 (劉以泰)	명의열전 ⁷²⁾	인물열전 조선의 명의
2007년	유이태 (劉以泰)	중앙대학교 ⁷³⁾	이규근 박사학위 논문
2008년	유이태 (劉以泰)	한겨레신문사 ⁷⁴⁾	인물열전 조선사람 허준 평전
2008년	유이태 (劉以泰)	산청한의학박물관 도록 ⁷⁵⁾	지방지 박물관도록, 산청명의들
2009년	유이태 (劉以泰)	산청군청 ⁷⁶⁾	지방지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연구보고서 2009
2011년	유이태 (劉以泰)	명의열전 ⁷⁷⁾	인물열전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2011년	유이태 (劉以泰)	한국의사학회지 ⁷⁸⁾	오준호 논문

표 1에 나타나는 劉以泰는 왕실기록(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의약동참선생안), 거창유씨족보, 행장, 묘비, 사우 推薦狀, 사우 문집, 설화모음집, 지리지, 지방지, 유학자 학술과 덕행 문헌, 인물열전, 최근의 논문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효행과 선행을 한 儒學者와 수많은 奇行을 한 名醫로 묘사되어 있다.

표 2. 문헌에 나타난 유이태(劉爾泰)

연도	이름	출전	비고
1934년	유이태 (劉爾泰)	麻疹篇 목판본 ⁷⁹⁾	저서 의서(醫書)
1962년	유이태 (劉爾泰)	朝鮮醫學史及疾 病史	인물백과사전
1966년	유이태 (劉爾泰)	韓國醫學史 ⁸⁰⁾	인물백과사전
1982년	유이태 (劉爾泰)	일본 오사카 행우서옥 ⁸¹⁾	장서목록
1987년	유이태 (劉爾泰)	韓醫學書攷 ⁸²⁾	인물백과사전
1995년	유이태 (劉爾泰)	서울대천연물과 학연구소 ⁸³⁾	번역본 저서 한국전통의약번역총서
2000년	유이태 (劉爾泰)	충북사학 제11.12합편 ⁸⁴⁾	학술 논문 (조선후기의 醫書編纂)
2004년	유이태 (劉爾泰)	한의학신문 ⁸⁵⁾	의서 평전 고의서산책 187.
2006년	유이태 (劉爾泰)	한의학신문 ⁸⁶⁾	의서 평전 고의서산책 287
2008년	유이태 (劉爾泰)	산청한의학박물 관도록 ⁸⁷⁾	지방지 박물관도록, 麻疹篇 소개
2009년	유이태 (劉爾泰)	산청군청 ⁸⁸⁾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연구보고서 2009
2009년	유이태 (劉爾泰)	대한감염학회 ⁸⁹⁾	논문 한국전염병사
2010년	유이태 (劉爾泰)	국역 實驗單方 ⁹⁰⁾	번역본 저서 의서(醫書)
2011년	유이태 (劉爾泰)	한의학신문 ⁹¹⁾	의서 평전 고의서산책 505
2012년	유이태 (劉爾泰)	서지학회지 ⁹²⁾	김중권 논문 麻疹篇 저술시기

79) 박주현. 마진편 발간문. 진주 회춘원약방. 1934년(소화9년)

80) 金斗鍾. 한국의사. 탐구당. 1966년(상, 하권 합본):404p

81) 杏雨書屋 藏書目錄. 財團法人 武田科學財團. 1982년(소화57년). 6월 10일:827p. 924p.

82) 김신권. 한의학서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425~427p, 774p.

83) 한국전통의약번역총서 마진기방.마진편.마과회통. 서울대천연물과학연구소편. 1994년 11월:해제. 65p.

84) 손홍열. 조선후기의 醫書編纂 - 영정조대를 중심으로. 충북사학 제11.12합편. 충북사학회 2000 : 320~321p

85) [고의서산책187] 劉爾泰麻疹篇. 민족의학신문. 2004년 01월 30일

86) [고의서산책287] 實驗單方. 민족의학신문. 2006년 04월 06일

87) 마진편,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 2008. 05:71,102~104,157p

88)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2009. 산청의 지방의학의 학술적 가치. 유이태 마진편. 188, 190~193, 196~198p. 산청군/한국한의학 연구원 2009.

89) 한국전염병사. 제5장 조선후기.3. 홍역의 창궐과 조선시대 후기의 마진학. 대한감염학회. 2009년 10월 25:253p

90) 국역 실험단방. 해제보기.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12. 31

표 2에 나타난 劉爾泰는 왕실기록이나 가문, 그가 활동한 산청지역에서 기록은 없고, 저서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 등 의서와 의서 관련 내용을 수록한 문헌에 의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2. 麻疹 발생 년대

왕실기록에 따르면 중종 18년(1523)에 처음으로 麻疹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다⁹³⁾. 조선시대에 麻疹이 어느 정도 유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이익(李瀾)⁹⁴⁾의 ‘성호쇄설(星湖僞說)’과 정약용의 마과회통에서 발견된다. ‘성호쇄설(星湖僞說)’과 마과회통에 따르면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진이 처음으로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후 숙종 시대에 1기에 한번씩 4번의 대규모 麻疹이 발생하였다. 이익(李瀾)의 ‘성호쇄설(星湖僞說)’과 정약용의 마과회통의 자료⁹⁵⁾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麻疹 유행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조선시대 후기(~19세기 이전) 麻疹 발생

주 기	발생년도	간지년도
마진 처음 발생	1613년 광해군 5년	계축년(癸丑年)
	1668년 현종 10년	무신년(戊申年)
12년 후	1680년 숙종 6년	경신년(庚申年)
12년 후	1692년 숙종 18년	임신년(壬申年)
14년 후	1706년 숙종 32년	병술년(丙戌年)
12년 후	1718년 숙종 44년	무술년(戊戌年)
11년 후	1729년 영조 6년	기유년(己酉年)
23년 후	1752년 영조 28년	임신년(壬申年)
23년 후	1775년 영조 52년	을미년(乙未年)
12년 후	1787년 정조 11년	병오년(丙午年)

표 3에서 숙종年間 4회, 영조年間 3회 등 1800년대 麻疹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麻疹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3. 기존의 劉爾泰 麻疹篇 저술연대 분석

1) 정조설(正祖說)

麻疹篇의 저술년도를 김두중은 정종2년(1778)⁹⁶⁾, 김신권은 정조 10년(1786)⁹⁷⁾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병오년은 현종 7년 1666, 영조 2년 1726년, 정조 10년 1786년, 현종 12년 1846년, 철종 43년 1906년이 있다. 김신권은 저자의 서문 연도와 홍역이 창궐한 연대를 연관시켜 정조 10년 병오년 1786년으로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순조설

일본인 의사 미키 사카에(三木 榮)가 주장한 설이다. 그는 1935년 수원도립병원장을 지낼 당시 수집한 麻疹篇과 인서문견록을 수집하였다. 『朝鮮醫書誌』에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2책의 사본을 소개하고 麟西라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194조의 병증으로 나누어 적었다고 설명하였다. 또 그는 “일반적으로 유포되고 경험방 또는 문경방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들 중에는 단순히 비망기와 같은 것들이 많지만 이 책은 이러한 경험방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것에 속한다.”라고 하여 그 내용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책의 내용으로 보아 純祖년간에 저술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3) 헌종설(憲宗說)

김중권이 주장하는 학설이다. 김중권은 肅宗 御醫 劉以泰와 麻疹篇 저자 劉爾泰는 다른 사람이라고 확정하였고, 憲宗 12년(1846년) 麻疹篇이 저술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주장한 근거는 첫째 劉爾泰가 麻疹篇을 저술한 연도인 丙午年(현종 12년) 1846년과 숙종 시대의 劉以泰 생몰년도

91) 고의서산책(505) - 『劉爾泰麻疹方』. 민족의학신문. 2011년 09월 22일

92) 김중권. ‘마진편의 저술시기 분석’. 서지학회, 서지학연구 제51집, 2012.06, 303-313p

93) 중종실록. 중종 18년(1523년. 계미) 4월 25일(병신)

“정월에 전교하기를, “세자(世子) 이피소(移避所)의 입직(入直) 인원(人員)을 상사(賞賜)하는 일은 올해(11360)의 예【세자가 마진(麻疹)을 앓을 때였다.】에 의해 시행하라.”하였다. 그래서 빈객(賓客) 임유겸(任由謙)·의원(醫員) 하종해(河宗海)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씩을 내리고, 나머지에겐 별조궁(別造弓)이나 혹은 목면(木綿)을 차등 있게 내렸다.”

94) 이익(李瀾), 1681년~1763년, 자 자신(自新), 호 성호(星湖), 본관 여주(驪州). 조선 후기의 실학자. 증조부 이상의(李尙毅) 의정부좌찬성, 조부 이지안(李志安) 사헌부지평, 아버지 이하진(李夏鎭) 사헌부대사헌, 사간원대사간, 진주목사. 저서 : 성호사설, 광우록, 성호선생문집, 이선생예설

95) 한국전통의학번역총서 마진기방·마진편·마과회통. 서울대천연물과약연구소편. 1994년 11월:392~393p

96) 김두중(金斗鍾).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년(상, 하권 합본):404p

97) 김신권. 한의학서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425~427p, 774p.

(1652~1715)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麻疹篇에는 산청현으로 기록된 치험사례가 나오는데 산청이라는 명칭은 영조 43년 1767년에 이후에 사용되었기 시작했으므로 劉爾泰는 그 후대의 순조, 헌종, 철종대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麻疹篇 ‘通治’편의 산청현에 있었던 치험사례 문장을 보고 경험인지 전해오는 말이 확실치 않다고 하였다. 넷째 劉爾泰 저서 實驗單方 서문의 저술년도인 적양모춘(赤陽暮春)을 정미년(丁未年) 1847년으로 추정하였다. 다섯째 祖父가 지어준 이름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

김중권의 劉爾泰 관련 사료가 없다는 이유로 劉爾泰의 본관, 출생지, 出生, 가계, 설화 이야기, 지방지 등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 성씨에서 劉氏는 大姓이 아니다. 특히 묘금도 劉氏의 宗家인 居昌劉氏 후손들은 서부경남(거창, 산청, 함천, 함양, 진주, 고성, 하동, 사천) 등에 세거하여 왔었다. 최근에 발간된 족보는 5권이다. 따라서 5권의 居昌劉氏 족보에서 劉爾泰 관련기록을 찾아보는 것이 합당함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실제로 거창유씨 족보에 劉爾泰 관련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한, 거창유씨에서 발행한 최초 족보⁹⁸⁾부터 1933년 이전에 발행한 모든 족보에 劉以泰가 醫業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1933년 발행한 계유보에 처음으로 관직과 의술기록이 나오며, 그 이후 발행한 모든 족보에 의술 관련 기록⁹⁹⁾ 있다. 名醫로서 여러 권의 醫書를 저술한 정도의 높은 소양을 갖춘 인물이 족보에 누락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劉以泰라

는 인물이 이명(異名) 劉爾泰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儒醫을 지낸 다른 가문에서 御醫를 지냈지만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숙종, 경종, 영조대의 任瑞鳳¹⁰⁰⁾이다. 任瑞鳳이 의학동참으로 어의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풍천임씨 족보에는 의술관련 기록이 없다. 또한 그의 아들 任應會도 유명한 의원이다¹⁰¹⁾. 그러나 풍천임씨 족보에 任應會 이름도 없다. 또한, 족보에는 任應會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任珪¹⁰²⁾으로 기록되어 있다. 任應會(족보명 : 任珪)의 의원 활동 기록이 풍천임씨족보에는 없다.

김중권의 논문 참고문헌 목록에 居昌劉氏 족보가 있다. 김중권은 그의 논문에서 劉以泰의 출생년도를 1652년으로 밝혔다. 필자가 조사한바 劉以泰 출생년도는 居昌劉氏 가문에서 발행한 모든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劉以泰 출생년도를 고찰한 논문은 없다. 그러나 김중권은 그의 논문에서 劉以泰의 출생년도를 1652년으로 밝혔으나 그 출전을 밝히지 아니했다.

김중권은 任瑞鳳의 壬申疹疫方¹⁰³⁾ 저술년도를 1752년 영조 28년으로 밝혔다. 任瑞鳳의 壬申疹疫方 저술년도를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를 밝히지 아니했다. 任瑞鳳의 본관은 풍천(豊川)이다. 任瑞鳳, 任瑞鳳 부친 任道恒¹⁰⁴⁾과 任瑞鳳 아들 임응회(족보명 : 珪)의 出生年度는 풍천임씨 목사공파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任瑞鳳은 숙종 45년 (1719년) 副司猛¹⁰⁵⁾으로 처음 관직을 받았고, 경종, 영조대의 儒醫로서 의약동참에 참가한 의원이다.¹⁰⁶⁾ 그는 영조 무신란(1728

98) 己丑譜 영조 45년 1769년

99) 자는 백원이고 호는 신연당이다. 통덕랑을 지냈다. 재질이 비범하였다. 의학에 매우 밝아 마음은 항상 소탈하였으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천거되어 중국으로 가서 천자의 병을 치료하고는 특별히 금자광록대부이부상서의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고사하여 받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또 효행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이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다. 을미 2월 27일 졸하였다. 묘는 산청 서모읍 명구동에 무과로 안장되었다.

字伯源號新淵堂通德郎才質超凡醫學極明心常爲賤而名自鳴世薦入皇朝以治天子之病而特授金紫光錄大夫吏部尙書固辭不受歸本國且以孝行純至有鄉道狀乙未二月二十七日卒墓山淸郡西毛音珠洞戊戌

100) 任瑞鳳. 1669?~1728. 통훈대부행 효능참봉건원사능직장 묘 이천 부발면 백록동.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 91p.

101) 『醫宗損益』권11 「婦人門」 “四物黃狗丸. 治經血不調. 熟地黃, 當歸, 川芎, 白芍藥, 便香附各五兩, 黃狗一隻去腸膜蒸搗, 和丸 梧子大. 米飲或溫酒吞下百丸.<任應會方>

102) 任栢. 생물미상. 字君玉 묘 빙암동.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 91p.

103) 任瑞鳳 임신진역방 저술년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김두중은 “임신년(1752)의 병증을 관찰한 기록이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김두중의 임신년(1752) 설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유는 任瑞鳳은 1728년에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임신년 저술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임진년에 저술하였다고 한다면 1692년 밖에 없다. 인명을 치료하는 의술의 특성으로 보아 많은 치료 경험한 후에 의서를 저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허준 등 많은 명의들이 말년(50세 이후) 그리고 대학자 정약용도 37세에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표4>에서 任瑞鳳은 1668~167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나이 약관 23 ~ 25세에 마진 전문의서 임신진역방을 저술하였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유이태 麻疹篇에도 임신년 겨울의 치험사례가 있다. 따라서 마진은 1692년 겨울에 마진이 유행하였다면 任瑞鳳도 임신년 이후에 저술한 것이 옳바르다. 任瑞鳳이 의술활동을 한 시기의 마진 발생년도는 1692년 임신년, 1706년 병술년, 1718년 무술년이다. 나이를 감안하여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시기는 그가 의약동참에 참가한 1719년 전후로 보아야 한다. 간지의 오기를 감안하고 의술을 많이 경험한 40세 이후에 任瑞鳳이 저술하였다고 가정한다면 1712년 임진년, 1722년 임오년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 필자는 1722년 임오년으로 추정한다. 이는 풍천임씨 족보의 생몰연대와 마진발생연도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104) 任道恒 1650(효종경인년). 字叔久. 충주목사. 묘 신릉리.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 91p.

105) 숙종실록 숙종 45년 2월 26일. “兵曹口傳政事, 司勇任瑞鳳”

년)에 연루되어 1728년 졸(卒)하였고 묘는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에 있다¹⁰⁷⁾. 그의 아들 임응희(족보명 : 瑄)는 무신란에 연류된 부친 때문에 가족이 전북 남원으로 이거(移居)하였다¹⁰⁸⁾. 그의 후손들은 남원에서 살았었다. 임서봉과 임응희 출생연대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기 표4는 풍천임씨 목사공파보를 토대로 만들었다. 任瑞鳳의 증조부 任汝後(1599, 乙亥年)¹⁰⁹⁾, 조부 任元登(1622, 壬戌年)¹¹⁰⁾, 아버지 任道恒(1650년), 숙부 任道謙(1652년)¹¹¹⁾, 임도겸의 아들로써 任瑞鳳 4촌인 任致果(1671)¹¹²⁾ 그리고 任瑞鳳 손자 任希仁(1720)¹¹³⁾의 출생연도는 기록되어 있다. 이

들의 출생연도를 감안하여 任瑞鳳의 나이를 추정하여 보았다. 任瑞鳳의 4촌인 임치과(1671)보다 뒤에 태어날 수 있다는 假定은 배제하였다. 임도항 20살에 任瑞鳳이 태어났다면 任瑞鳳의 출생연대는 1669년[1650 + (20-1)] 이다. 부친과 숙부의 나이 차이와 4촌 동생 치과의 나이 차이 두 살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任瑞鳳의 출생연도는 1669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증권은 1728년에 죽은 任瑞鳳이 1752년 영조 28년에 다시 태어난 후 임신진역방을 저술하였다는 논리이다.

표 4. 任瑞鳳 가계¹¹⁴⁾

항 렬	이름 및 출생년도			父子 나이차	兄弟 나이차
5대조/高祖父	5대조 임국로(1537) / 고조부 임수정(1570)			34세=1570-1537+1	
曾祖父	임덕후(1597)	임여후 (1599)	임유후 ¹¹⁵⁾ (1601)	30세=1570-1599+1	2
祖父	임행등(1639)	임원등 (1622)	임익등(1625)	24세=1622-1599+1	2
父親	임도항(1650)	숙부 : 임도겸(1652)	재당숙 : 임도정(1667)	24~28세	2
本人	任瑞鳳(1669) = 임도항 1650 + 20 -1 任瑞鳳(1670) = 임도항 1650 + 21 -1 任瑞鳳(1671) = 임도항 1650 + 22 -1 任瑞鳳(1672) = 임도항 1650 + 23 -1 任瑞鳳(1673) = 임도항 1650 + 24 -1	4촌 : 임치과(1671)	6촌 : 임치원(1695)	24~28세	?
子	임현(임응희, 1690? ~ ? : 1669 + 22-1)	임상도(1692)			
孫子	임희인(1720)	임 발(1726)			

106) 경종 2년 08월/18일(신미) 1722년. 泰考曰, (중략) 卽今儒醫, 利川居任瑞鳳, 以運氣法治病, 閭巷問奇疾, 多得其治療之效, 星州居朴太初, 亦南中名醫也. 李公胤則自上亦嘗見之, 其爲人, 雖似粗率, 而醫術則時有奇中處, 此人等, 皆當招致相議, 而若自藥院, 啓請招致, 則外間不知聖候之如何, 必爲驚撓矣. 瑞鳳, 卽故參判有後之從孫, 公胤, 乃故承旨廷圭之孫, 掌令敏徵之子, 而朴太初, 亦南中知名士子也. 分付銓曹, 使之付職, 以爲上來恒留, 入參議藥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107)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 91p.

108) “그의 아들 임응희는 죄에 연루되어 남원에 귀양 갔는데 그 역시 용한 의원으로 알려졌다.” 청성잡기 4권

109) 任汝後. 1599~1665. 四山縣監.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24p.

110) 任元登(1622~1665)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24p.

111) 任道謙(1652년(효종 임진)~1714(숙종 갑오).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93p.

112) 任致果(1671~1736). 숙종 乙卯 進士,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93p.

113) 任希仁(1720~?).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 91p.

114) 풍천임씨 목사공파보. 1991년 7월

115) 임유후(任有後:1601(선조 34)~1673(현종 14)) 자 효백(孝伯), 호 만휴당(萬休堂), 휴와(休窩), 시호 정희(貞僖) 본관 풍천(豐川). 임숙영(任叔英) 문인. 조부 國老 吏曹判書, 부친 守正 弘文館校理. 24세 때(인조 2) 司馬·生進 합격. 26세 정시문과(庭試文科) 乙科 급제, 承文院假注書. 63세 때 承旨·禮曹參議 - 70세(현종 11) 공조·병조참판- 72세 京畿監司·戶曹參判·慶州府尹. 문집 萬休集 (11권 4책) <休窩雜纂> (단권 1책) 시조 1수. 시호 貞僖.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劉爾泰 처방이다. 四物黃狗丸¹¹⁶⁾은 實驗單方과 麟西聞見錄에 수록되어 있다. 황도연¹¹⁷⁾은 의종손익(醫宗損益)¹¹⁸⁾에서 四物黃狗丸은 임응회의 처방이라고 하였다¹¹⁹⁾. 임응회는 산청과 거리가 가까운 전북 남원에서 거주 및 의술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 연대는 1730~1760년대로 추정된다. 임응회가 조부와 동연배의 劉爾泰 처방을 사용할 수 있다. 劉爾泰 麻疹篇에 태을신명단(太乙神明丹)¹²⁰⁾ 처방이 있다. 太乙神明丹은 마진예방(麻疹預防) 처방이다. 중국 의서와 동의보감에도 太乙神明丹 처방이 없다. 太乙神明丹은 趙廷俊의 及幼方¹²¹⁾과 정약용의 마과회통¹²²⁾에 적소두(赤小豆)를 추가한 처방으로 나온다.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처방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이미 있었던 약재를 빼기 보다는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오히려 급유방과 마과회통이 麻疹篇에 비해 후

대에 쓰여 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새로이 쓰는 마진편 저자 및 저술연대(숙종설)

1) 저자 이름, 호 및 출생지

숙종 어의 劉以泰와 麻疹篇의 저자 劉爾泰는 동일인이다. 그 첫 번째 근거는 劉以泰가 劉爾泰로 이름을 쓴 경우가 거창유씨족보와 사우문집 등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유이태의 사우 양처제 문집 묵재집(默齋集)에 권1에는 以泰로 기록되었고¹²³⁾, 권3에는 爾泰로 기록되어 있다¹²⁴⁾. 유이태는 劉以泰와 劉爾泰 同名異者(意)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둘째, 劉爾泰가 사용했던 호이다. 劉爾泰는 猿鶴山人이란 호를 사용했는데 猿鶴이란 지명은 다른 아닌 숙종 어의 劉

- 116) 월경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사물황구환·익모초환이 신묘한 효험이 있다. 비위의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흑백이고 총백을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月經不調, 四物黃狗丸, 益母草丸, 神妙. 脾胃好子, 側柏葉並蔥白, 煎服. 국역 실험단방 252p.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년
- 117) 황도연(黃道淵, 1807(순조 7)~1884(고종 21)). 조선 후기의 의인(醫人). 본관 장원(昌原). 호 혜암(惠庵). 저서 : 부방편람, 의종손익, 의방활투
- 118) 의종손익(醫宗損益) : 조선 후기 목관본 의서(醫書). 저자 : 황도연. 조선 후기(1868). [출처] 의종손익 | 두산백과
- 119) 『醫宗損益』권11 「婦人門」 “四物黃狗丸. 治經血不調. 熟地黃, 當歸, 川芎, 白芍藥, 使香附各五兩, 黃狗一隻去腸膜蒸搗, 和丸 梧子大. 米飲或溫酒吞下百丸.<任應會方>
- 120) 태을신명단(太乙神明丹) 비교표

처방명	태을신명단(太乙神明丹)		
작용부위	소아(小兒)	소아(小兒)	소아(小兒)
효능	마진예방(麻疹預防)	마진예방(麻疹預防)	마진예방(麻疹預防)
제제법	세말(細末), 밀환(蜜丸), 탄자대(彈子大)	세말(細末), 밀환(蜜丸), 탄자대(彈子大), 진사의(辰砂衣)	세말(細末), 연밀환(煉蜜丸), 탄자대(彈子大), 진사위의(辰砂爲衣)
용법	1세된 아이는 1환을 3일에 나누어 먹이며, 4~5세 이상은 매1환씩 3일을 연달아 먹임	1세 아이에는 1환을 4쪽으로 나누어 먹이고, 2~3세 아이에게는 반환을, 4~5세 아이에게는 1환을 백비탕(白沸湯)에 개어 3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일찍 먹임	1세 된 아이는 1/4환, 2~3세 된 아이는 1/2환, 4~5세 된 아이는 1환씩 끓인 물로 아침 일찍 3일 동안 먹임
주의사항	임산부와 앓기 시작한 사람은 먹을 수 없음		
출전	마진편(麻疹篇)	급유방(及幼方)	마과회통(麻科會通)
저자	유이태(劉爾泰)	조정준(趙廷俊)	정약용(丁若鏞)
구성약재	건갈(乾葛) 2냥	갈근(葛根) A 2냥	갈근(葛根) A 2냥
	귀견우(鬼箭羽) 5전	귀견우(鬼箭羽) 5푼	귀견우(鬼箭羽) 5전
	녹두(綠豆) 2냥	녹두(綠豆) 4냥	녹두(綠豆)<세(洗), 껍질째 볶은 것> 4냥
	단삼(丹蔘) 5전	단삼(丹蔘) 5푼	단삼(丹蔘) 5전
	백작약(白芍藥) 7전 5푼	백작약(白芍藥) 7전 5푼	백작약(白芍藥) 7전 5푼
	석용황(石雄黃) 5전	소엽(蘇葉) 1냥	소엽(蘇葉) 1냥
	승마(升麻) A 2냥	승마(升麻) A 1냥 5전	승마(升麻) A 1냥 5전
	시호(柴胡) A 7전 5푼	시호(柴胡) A 7전 5푼	시호(柴胡) A 7전 5푼
	자소엽(紫蘇葉) 1냥	웅황(雄黃) 5푼	웅황(雄黃) 5전
	주사(朱砂) 2전 5푼	진사(辰砂) 5푼	진사(辰砂) 5전
황금(黃芩) 7전 5푼	황금(黃芩) 7전 5푼	황금(黃芩) 7전 5푼	
	적소두(赤小豆) A<세정(洗淨), 유피(留皮), 초숙(炒熟)>4냥	적소두(赤小豆) A<세(洗), 껍질째 볶은 것> 4냥	

- 121) 급유방(及幼方) 조선 영조 1749년(영조 25) 조정준(趙廷俊)이 지은 13권 6책 한국 최초의 소아과 전문 의학서. 1750년(영조 26)에 쓴 조현명(趙顯命)의 서문(序文)과 그 전년에 쓴 저자의 자서(自序)가 있다. [출처] 급유방 | 두산백과
- 122) 마과회통(麻科會通). 정약용이 천연두와 홍역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중국과 조선의 의학서를 분석 종합한 의학서.
- 123) 挽劉以泰 伯元 三首 목재집 1권
- 124) 慰崔道士 爾泰 목재집 3권

以泰가 태어난 곳이다. 猿鶴이란 地名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猿鶴이란 지명을 사용하는 지역은 거창 위천이었다. 猿鶴은 金猿山의 “猿”과 鶴潭의 “鶴”에서 따서 만든 위천면 지명이다¹²⁵⁾. 4) 거창군 위천면사무소 주소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번지이다. 숙종 어의 劉以泰는 거창 위천 원학에서 1652년 태어나 10세 전후 산청 생초 신연으로 이거하여 1715년 졸하였다. 또한, 劉以泰의 처가도 거창 위천 원학이다. 劉以泰는 의술활동을 펴던 山淸郡生林面¹²⁶⁾ 新淵의 지명을 따온 호 新淵堂을 사용했다. 당시 유자(儒者)들이 의술관련 기록을 족보에 남기는 것을 꺼려했던 정서로 미루어 보아 의서에는 다른 이름과 다른 종류의 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劉氏 모두가 수록된 유씨대동보(거창, 강릉, 백천)에는 劉以泰는 기록되어 있고 劉爾泰는 없다. 3권의 醫書を 남긴 劉爾泰는 儒醫가 분명하다. 그런 劉爾泰가 劉氏 대동보, 거창유씨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지(산청군지, 산청향교지, 거창군지, 창원군지)와 지리지(조선환여승람), 학파의 연원과 학설 그리고 저명한 인물을 기술한 동유학안에 劉以泰는 기록되어 있고 劉爾泰는 없다. 3권의 의서를 남긴 유명한 名醫 劉爾泰가 활동하던 지방의 관청에서 발행한 지방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밖에 한국구비문학대계 명의설화에 신연당 劉以泰는 녹취되어 수록되어 있으나 猿鶴山人(또는 麟西) 劉爾泰는 없다 점과 劉以泰와 劉爾泰가 활동한 분야는 동일한 醫術이고 그 지역 역시 산청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이다.

마지막으로, 劉以泰 家門에서 두 개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劉以泰 후손 중에서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¹²⁷⁾.

2) 유이태(劉以泰, 劉爾泰) 출생년도

유이태의 出生年度는 거창유씨족보와 유씨대동보에 기록이 없으며 가승(家乘)에도 기록이 없다. 또한, 유이태의 나이를 고찰한 논문도 없다. 필자는 新然堂 劉以泰 문집에서

劉以泰 나이를 발견하였다. 거창유씨 족보에 기록되지 아니했던 劉以泰 나이는 그의 문집에 기록되어 있었고 64세에 운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운수가 64세에 다하였으니 어찌 백세에 이르지 못했는가?』

有數窮八八 胡不能期頤¹²⁸⁾

거창유씨가 발행한 모든 족보에 劉以泰의 몰년(沒年)은 1715년이다. 1715년에서 64세를 빼면 1651년(1715년 - 64세 = 1651년)이 된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나이가 한살이 된다. 따라서 1651년 + 1 = 1652년이다. 따라서 劉以泰는 1652년 효종 3년에 태어나서 1715년 숙종 41년 향년 64세로 졸(卒)한 것이다.

3) 마진편, 인서문견록 저술연도 및 의술 활동연도

(1) 인서문견록 저술연도

2011년 10월 10일 e-mail로 필자를 밝히고 그동안 수집한 유이태 역사적 기록을 정리한 파일을 김중권에게 보내바 있다. 실험단방 필사본은 현재 소장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실험단방 필사본 복사본은 필자가 소장하고 있다. 필자는 실험단방 복사본을 복사하여 경희대 한의학과와 경인교육대학교에만 제공한바 있다. 필자가 소장한 실험단방 복사본 서문 사본을 김중권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 또한 필자가 인터넷으로 실험단방 序文만을 서비스 한바가 있다. 김중권은 이것을 근거로 實驗單方 저술연대를 추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중권은 유이태 약전 파일에서 기록된 유이태 出生年(1652년)과 실험단방의 서문 출전을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중권은 實驗單方 서문 내용에서 “적양모춘(赤陽暮春)”을 정미년(丁未年) 1847년으로 추정하나 이는 간지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가 평소에 잡병에 대해서 경험한 것과 얻어들은 단방

125) 고증 : 유경연(1933 ~ ,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리). 거창군사. 거창군사편찬위원회. 1997. 06. 131p
 “마을 서쪽에 金猿山이 있고, 동쪽 위천에는 鶴潭이 있으므로 猿鶴洞이라 한다.” “고계에서 내려오는 완계(漣溪)와 웅양에서 내려오는 미수(溟水) 두 물이 어울리고 그 사이에 세 산이 있어서 ‘三山二水’ 신선이 사는 경치 좋은 곳이라 하여 원학동(원학동) 원학골이라 한다.”
 126) 1914년 生林面은 초곡면과 병합되면서 地名이 生草面으로 변경되었다. 산청군지. 2006년 05월. 62p
 127) 산청 생초 율곡 후손 劉景圭는 劉景圭, 산청 생초 송정 후손 劉相然은 劉相大. 거창유씨족보
 128) 정중원(1659 ~ 1726). 字善長 號천천옹. 童蒙教官, 世子副率 光陵參奉. 부: 제천현감 정기수, 조부 공조정랑예빈사주부, 증조 이조참판 증승 정대부의정부좌찬성 동계 정운, 자 정희량.

을 수시로 기록한 책으로 갖추어서 뒷날의 구명 치료의 방도로 하니 비록 의가전서와 같이 상세하지는 않으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날로 쓰이는 일에 만의 하나라도 도움이 될 가 한다.』

亦陽暮看下澣 麟西 劉爾泰¹²⁹⁾

劉爾泰는 麻疹篇 이외에 實驗單方과 麟西聞見錄 의서들이 있다. 김중권은 麟西聞見錄을 고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麟西聞見錄은 經驗方이다. 麟西聞見錄과 實驗單方 내용은 같으나 서명, 서문 내용과 간지가 다르다. 麟西聞見錄은 일본 오사카 행우서옥 소장본¹³⁰⁾과 남원 세화당 박병숙 소장본 등 두 종류의 판본이 있다. 행우서옥 소장본의 해외영인본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필자이다. 행우서옥 소장본에는 서문이 없고, 남원 세화당 박병숙 소장본에는 序文과 序文에 號가 있다. 박병숙 소장본 序文에는 屠維赤奮若仲秋之月麟西老父書로 기록되어 있다. 도유(屠維)는 己, 적분약(赤奮若)은 丑이다. 劉爾泰가 己丑年에 麟西聞見錄을 저술하였다는 이야기이다. 己丑年은 1709년 숙종 35년이다. 劉以泰가 의술활동한 시기와 일치되는 연대이다.

“대개 사람의 한평생을 바라보건대 병이 없는 자가 드물다. 그럴지만 병든 자로 하여금 능히 자기의 병을 調治

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준다면 반드시 몸을 훼손하는데 이르지 않아도 될 것이니 가히 조심하지 않으랴. 내가 평소에 경험한 여러 가지 잡병 치료법과 여기저기서 얻어 들은 단방을 한 책에 수록하여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고자 했으니 구료하는 방도가 비록 醫家全書와 같이 상세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날마다 쓰는 데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을 것이다.

기축己丑년(1709) 가을(음8월) 인서노부(麟西老夫)가 쓴다.¹³¹⁾

劉以泰와 劉爾泰의 활동년도 논란 기간 동안의 기축년은 1709년, 1769년, 1829년, 1889년 등이 있다. 김중권은 실험단방과 인서문견록을 동시에 고찰하지 아니했다. 김중권의 주장대로 한다면 표5에 의거 현종 12년 병오년(1846)에 麻疹篇 저술하고 44년 뒤인 1890년에 麟西聞見錄을 저술하였거나, 1829년에 麟西聞見錄을 저술하고 18년 후에 현종 12년 병오년(1846)에 麻疹篇을 저술하였다는 논리이다. 김중권은 순조(1800~1834)와 헌종(1834~1849), 철종(1849~1863 재위)조에 활동한 인물로 주장하였다¹³²⁾.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서를 그의 나이 40세 이후 즉 말년에 저술한다. 특히 경험방은 전문의서보다 뒤에 저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표 5. 麻疹篇 저술년도 병오년과 인서문견록 저술년도 기축년 및 마진 유행 임신년 비교

김중권 주장 劉爾泰 활동연대	김중권 주장 현종 12년 병오년(1846) 麻疹篇 저술시 劉爾泰 나이	丁未年(1847) 실험단방 저술시 劉爾泰 나이	己丑年(1829) 인서문견록 저술시 劉爾泰 나이	己丑年(1889) 인서문견록 저술시 劉爾泰 나이
1800 ~ 1863 순조(1800~1834), 헌종(1834~1849), 철종(1849~1863).	35세 병오년(1846)	36세 정미년(1847)	19세 기축년(1829)	78세 기축년(1889)
	40세 병오년(1846)	41세 정미년(1847)	24세 기축년(1829)	83세 기축년(1889)
	45세 병오년(1846)	46세 정미년(1847)	29세 기축년(1829)	88세 기축년(1889)
	50세 병오년(1846)	51세 정미년(1847)	33세 기축년(1829)	93세 기축년(1889)
	55세 병오년(1846)	56세 정미년(1847)	39세 기축년(1829)	98세 기축년(1889)

(2) 山陰에서 山淸으로 顯名 變更

김중권은 산음현이 영조 43년 1767년에 산청현으로 변

경된 사실 때문에 劉爾泰는 1767년 이후의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1767년 이후에 발간된 문헌에서 山陰을 山淸으로 기록한 사실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716년 이전에 즐

129) 『余觀人之一生無病者蓋鮮矣然使病者能知其調治之方則必不至損傷之患可不慎歟余利平日雜病之經驗所得聞之單方隨錄於一冊以備後來救療之方雖非醫家全書之祥 亦陽暮看下澣 麟西 劉爾泰』.

130) 오사카 행우서옥 해외영인본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필자

131) 余觀夫人之一生，無病者蓋鮮矣，然夫使病者，能知其調治之方，則必不知(至)損傷之患，可不慎歟。余以平日雜病小經驗，所得聞知(至)單方，隨錄於一冊，以備後來，救療之方，雖非醫家全書之祥，亦有補於人生日用之萬一云爾。屠維赤奮若仲秋之月麟西老父書

132) 김중권, 마진편의 저술시기 분석, 서지학연구 제51지1(2012.6) 313p.

(卒)한 劉以泰 부친 劉潤祺와 劉以泰 묘소가 山陰 西毛音¹³³⁾ 明珠洞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山淸 西毛音 明珠洞으로 기록되어 있다¹³⁴⁾. 1988년에 발행된 거창유씨족보에는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명주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흥(餘興)민씨 산음(山陰) 入鄉祖 閔安富¹³⁵⁾는 고려말 인물이다. 민안부와 그의 아들 등 후손들의 묘소를 山陰縣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山淸縣으로 기록되어 있다¹³⁶⁾. 영조 43년 1767년 이후에 살던 山淸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영조 43년 1767년 이전에 졸(卒)한 사람들의 기록을 山陰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관습적으로 山淸으로 기록하는 것을 간과하였다. 1934년 박주현이 麻疹篇을 발간할 때 식자공도 이런 이유로 오식(誤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김중권은 山淸에는 劉以泰 유적, 기록과 설화가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3) 임신년 치험사례

麻疹篇에는 壬申年(1692)의 두개 치험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산청현(山淸縣)에 절 하나가 있었는데 임신년(壬辛年) 겨울에 중들이 마진을 앓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샘물을 마셨으며 갈증이 나면 또 마셨는데 실패한 사람이 1명도 없었다. 마진은 陽에 속하여 熱이 많기 때문이다.’¹³⁷⁾

山淸縣有一刹 壬辛冬閏梨患疹 皆飲井水 渴則復飲而 無一人見敗者 蓋疹屬陽而熱多也

임신년(壬辛年) 겨울에 14세 된 어떤 처녀가 마진을 앓는데, 반진이 솟았다가 즉시 걸렸다. 그리하여 마진 독이 속으로 심장을 침범하여 맥박이 급하고 위가 답답하니, 회충이 입으로 나오는데 꼭 쥐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듯이 하였다. 이에 소독음(消毒飲)과 우황고(牛黃膏)를 썼으나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중략) 이에 야인시(야인시)를 볶아 찹쌀미음(?미음)에 담가서 5공기를 먹이고 하니, 회충이 그치고 반진도 다 솟았으며 정신도 돌아왔다. 그런 뒤 잘 조섭하였더니 며칠 안 되어 다 나아났다¹³⁸⁾.

壬辛冬有 十四歲處子 患疹 既出而又沒 疹毒內攻 心慌 胃爛烟出口中 如鼠穴生烟者 用消毒飲 牛黃膏 無分効 (중략) 用野人 乾炒 漬糯米茶灌下 五椀後烟止而 癍亦盡透 精神且回 善爲調攝 計日收功

김중권은 마진편에 두 개의 治驗事例中 절의 스님 治驗事例는 본인의 경험인지 전해오는 말을 듣고 기록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14세 처녀의 치험사례를 언급하지 아니했다.

麻疹篇에 壬申年(1692년) 두개의 마진 치험사례가 있는 것을 보아 1692년 이후에 麻疹篇을 저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痛治’에 절의 중 치험사례 샘물은 劉以泰 약수터(장군수)¹³⁹⁾로 산청 금서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麻疹變症’의 14세 처녀의 治驗 事例는 산청군지¹⁴⁰⁾에 劉以泰 설화로 채집되어 기록되어 있고, 필자도 비슷한 설화¹⁴¹⁾를 녹취하였다. 이 治驗 事例들은 산청지역에 내려오는 劉以泰

133) 현재 지명 : 생초면

134) 거창유씨족보 己丑譜(1769년)

135) 민안부(閔安富, 생몰 미상), 자영숙(榮叔), 호農隱 고려 후기 충신. 본관 驪興. 부: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 유(孺), 杜門洞 72현 한 사람. 공양왕 때 禮儀判書. 1392년(태조 1) 이성계 개국을 반대하여 구홍(具鴻)·박심(朴謹)·채귀하(蔡貴河)·이맹운(李孟芸) 등 72현과 함께 두문동에 들어가서 고려에 대한 의리 지켰다. 경상남도 山陰縣 大浦里 거주하면서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송경(松京)을 바라보면서 망국 추모. 자손들을 경계하여 조선조에 벼슬하지 말도록 하였고, 현감에 기용된 아들을 사직하게 하였다. 영조조에는 72현 충신들이 은거하여 있던 곳을 부조현에 봉하고 치제하는 온전을 내렸다. 산청 영남유림들에 의하여 崇節祠 제향, 정조 때 表節祠 제향. 네이버 지식백과. 묘 산청현 북옥곡면. 여흥민씨족보 1915년 4권중 제1권 地1~2

136) 여흥민씨족보. 1915년. 4권중 제1권. 地1~2

137) 麻疹篇. ‘通治’

138) 麻疹篇. ‘麻疹變症’

139) 강무성(1918~).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652. 왕산약수터

140) 산청군지 제4편 미숙과 종교 제2장 전설 4. 명의 劉以泰. 산청군.산청문화원 2006년 5월. 690p.

141) “내가 처녀를 진맥하여 보겠다.” 한 후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처녀는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몸속에 백년 묵은 여우가 처녀의 몸속에 들어 있어 처녀가 앓고 있었던 것 이었다. 처녀의 어머니에게 처녀의 병을 고쳐 주겠다고 한 후, 처녀 어머니에게 “많은 문종이(한 지), 풀, 풀비자루와 잘드는 칼 그리고 3일 동안 먹은 식사 가져다 달라. 3일 동안 처녀 방 근처에 절대로 오지도 말고 또, 절대로 방문에 구멍을 드러다 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유이태 의원은 처녀의 어머니가 가져다 준 문종이를 방에서 바람 한 점 새어 나갈 수 없도록 바랐다. 그리고 처녀의 상의를 벗기고 배속에 들어 있는 백년 묵은 여우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처녀 어머니는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첫날을 참았다. 둘째 날은 방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 셋째 날은 유의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참지 못하고 유이태 의원과 딸이 있는 방에 가서 바늘로 구멍을 내고 안을 달려다 보니, 유의원이 딸의 상반신을 완전히 벗기고 손으로 배에서부터 가슴을 거쳐서 올라오고 있었다. 처녀의 어머니는 해괴망측 하다고 생각하는데 처녀의 코 속에서 파란 연기가 나왔고 연기는 파랑새로 변했다. 유의원이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파랑새는 처녀 어머니가 똥을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날라 나가고, 구멍을 빠져나온 파랑새는 여우로 변하여 뒷산으로 사라졌다. 유의원은 잡을 수 있는 백년 묵은 여우를 놓치게 되었다. 방밖으로 나가서 처녀의 어머니를 커다랗게 책망하였다.

설화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麻疹篇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임신년은 1692년, 1752년, 1812년, 1876년 이다. 표3에서 마진이 유행한 연도의 임신년은 1692년과 1752년이다. 김중권이 劉爾泰가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는 1800~1863(순조 1800~1834, 헌종1834~1849, 철종1849~1863)간에 마진이 대 유행했다는 연도의 임신년은 없고, 劉以泰의 의술 활동기간이며 마진이 유행하였던 1692년 임신년과 劉以泰의 사후로서 마진이 유행하였던 임신년은 1752년이다. 임

신년은 劉以泰가 활동을 하던 시기의 1692년이다. 따라서 麻疹篇은 劉以泰의 활동기간이며, 마진이 유행하였던 1692년 이후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축년(癸丑年. 광해군 5년, 1613)에 진(疹)이 유행하였고, 그 후 빈번히 麻疹이 발생하였다. 대규모 麻疹 발생년도, 劉爾泰가 경험했던 임신년 치험사례와 麻疹篇 저술년도 병오년, 麟西聞見錄 저술년도 기축년을 도표로 작성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홍역발생 년도, 마진 치험사례 년도 및 麻疹篇 저술년도, 인서문견록 저술년도 비교표

마진 발생 주기/년도		麻疹篇 壬申年 치험사례			麻疹篇 저술년도		인서문견록 저술년도 기축년	
주 기	발생년도	년도	마진 발생	유이태 나이	년도	비고	년도	비고
처음 발생	1613 癸丑年							
7년 이후	1668 戊申年				1666 속종7년	유이태 15세		
12년 후	1680 庚申年							
12년 후	1692 壬申年	1692	마진 성행	유이태 41세	1696 丙子年	45세 필자 추정	1709 속종35년	유이태 58세
14년 후	1706 丙戌年				1702 壬午年			
12년 후	1718 戊戌年				1706 丙戌年			
11년 후	1729 己酉年				1726 병오년	유이태 사후		
23년 후	1752 壬申年	1752	마진 성행	유이태 사후				
23년 후	1775 乙未年	1812			1786 병오년	김신권 주장	1769 영조45년	
12년 후	1787 丙午年	1872			1846 병오년	김중권 주장	1829 순조29년	

표 6에서 劉以泰.劉爾泰가 의술활동을 하였던 기간에 麻疹이 발생한 연도는 경신년(庚申年. 속종 6년, 1680), 12년 후 임신년(壬申年. 속종18년, 1692), 14년 후 병술년(丙戌年. 속종 32년, 1706) 이다. 麻疹篇에 임신년 치험사례 두 개가 있다. 또한 유이태는 麻疹篇 서문에 마진이 발생한 기간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2기¹⁴²⁾에나 한 번씩 오던 것이, 근래에 와서 1기¹⁴³⁾에 한 번씩 돌아와 도성이나 시골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잇따르게 되었는가.”

我東邦挽近前者二紀而一回今焉一紀而一回城市村落死亡相繼

1기를 15년이라고 했을 때 1668년, 1680년, 1692년,

1706년의 마진 발생은 劉爾泰 自記와 일치하며, 麻疹篇에 있는 壬申年 치험사례와 일치한다.

(4) 마진편 저술년도

劉以泰.劉爾泰가 의술활동을 하였던 기간(1652~1715) 동안 마진이 발생한 연도는 戊申年(1668년) 경신년(庚申年. 속종 6년, 1680), 12년 후 임신년(壬申年. 속종 18년, 1692), 14년 후 병술년(丙戌年. 속종 32년, 1706) 이다. 劉爾泰는 1680년과 1692년 마진이 유행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麻疹篇을 저술하였다. 麻疹篇에 임신년(1692년) 겨울의 치험사례가 있고, 1706년 마진 치험사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아 유이태는 1693년 이후와 1706년 이전에 麻疹篇이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1706년을 제외하

“또다시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환생하여 이 처녀를 찾아 올 것이다. 그 때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구술자 : *** 설화 제 공자 : 배순미자(1935~2011, 산청군 생초면 평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선프라자 A동@1530., 2001년 9월 25일). 녹취자 유철호

142) 30년

143) 15년 : 1668년, 1680년, 1692년

면 병자년(丙子年, 1696년)과 임오년(壬午年, 1702년) 등 두 개로 압축된다. 식자공(植字工)의 간지 오식, 즉 ‘丙子’의 ‘子’를 ‘丙午’의 ‘午’로 오식한 것을 감안하고, 劉爾泰가 麻疹篇 서문 自記에 40년간 경험한 후 저술하였다고 하였는데 유이태가 의술활동년도를 잘못 계산한 것을 감안하면 劉爾泰는 麻疹篇을 병자년(丙子年, 1696년)으로 저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III. 결론

김중권은 劉爾泰가 순조(1800~1834), 현종(1834~1849), 철종(1849~1863) 년간에 활동한 의원으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본고에서는 居昌 劉氏와 劉氏대종보에서 발행한 족보 검토, 劉以泰와 劉爾泰의 호에 대한 분석, 劉以泰 출생지와 활동지 확인, 新淵堂 劉以泰 文集, 劉以泰 墓所 및 墓碑 확인, 劉以泰 사우 문집, 산음현을 산청현으로 기록한 문헌, 지방지(산청군지, 산청향고지, 거창군지, 창원군지) 기록, 지리지 기록, 동유학안 기록, 劉以泰 처방 분석, 麻疹篇 치험사례에 나오는 劉以泰 설화, 劉以泰 가문에서 두 개의 이름 사용 여부를 고찰한 후 劉以泰와 劉爾泰의 동일인 여부를 밝히고 그 저술 시기를 고찰하였다. 劉以泰와 劉爾泰가 동일인이라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 1) 劉以泰 사우 문집인 목재집에 유이태는 劉以泰와 劉爾泰로 기록되어 있다.
- 2) 劉氏대종보 등 모든 족보에 猿鶴山人 劉爾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新淵堂 劉以泰는 기록되어 있다.
- 3) 劉以泰 부친과 劉以泰 졸(卒)년은 1716년 이전이다. 그러나 1769년에 발행된 거창유씨족보에 묘소를 산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산청으로 기록되어 있다.
- 4) 劉以泰의 후손 중에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후손들이 있다.
- 5) 新淵堂 劉以泰와 猿鶴山人 劉爾泰가 의술 활동을 펼친 지역은 산청이다.
- 6) 猿鶴山人이란 호를 가진 의원은 劉爾泰 이다.
- 7) 猿鶴山人 호를 그의 저서 麻疹篇에 사용한 의원은 劉爾泰이다.
- 8) 猿鶴은 거창 위천의 지명이다.

- 9) 猿鶴山人 劉爾泰는 거창 위천과 관련이 있다.
 - 10) 新淵堂 劉以泰가 태어난 지역은 거창 위천 원학이다.
 - 11) 新淵堂 劉以泰의 처가가 거창 위천 원학이다.
 - 12) 新淵堂 劉以泰와 猿鶴山人 劉爾泰는 거창 위천 猿鶴과 관련이 있다.
 - 13) 實驗單方과 麟西聞見錄의 저자는 麟西 劉爾泰 이다.
 - 14) 麟西聞見錄은 劉爾泰가 屠維赤奮若仲秋之月에 쓴 의서이다.
 - 15) 屠維赤奮若仲秋之月의 도유(屠維)는 己, 적분약(赤奮若)은 丑. 즉, 己丑年(1709)이다.
 - 16) 猿鶴山人·麟西 劉爾泰는 숙종 시대에 활동한 의원이자이다.
 - 17) 劉以泰와 劉爾泰는 동일인이고 1652년에 태어나 1715년에 활동한 名醫이다.
 - 18) 麻疹篇 저술년도는 식자공의 간지 오식(誤植)을 감안하고, 丙戌年(1706) 치험사례가 없고, 壬申年(1692) 치험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1693년 이후에서 1706년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麻疹篇 저술년도는 1696년으로 추정된다.
- 劉以泰와 劉爾泰는 同一人으로서 1652년에 거창 위천 사마리, 즉 猿鶴에서 태어나 10세 전후에 外家가 있던 山淸郡 生草面 新淵으로 이거하여 산청 생초 신연에서 민초를 위한 의술활동을 펴던 중 말년(숙종 36년과 39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양을 방문하여 임금을 치료한 공로로 승록대부 안산군수직을 받았다. 숙종 40년 1714년 한양에서 산청으로 돌아와 그 이듬해 1715년 산청 생초 신연에서 졸하였다. 유이태(劉以泰, 劉爾泰)는 肅宗 御醫를 지낸 명의로서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을 남겼다. 劉以泰는 가문과 향리, 왕실기록, 사우 문집, 지방지, 설화에 나오는 이름이고, 호는 新淵堂으로 사용하였다. 新淵堂 劉以泰가 의서를 저술할 때 서문에 사용했던 이름과 사우를 위문하는 글에는 劉爾泰이고, 호는 猿鶴山人, 麟西이다. 가문, 향리 그리고 사우들은 그를 화타와 편작으로 칭하였다. 그는 선비로서 일생 동안 효행과 선행을 하였다. 자신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타인을 위하였고 귀천, 친소, 빈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오직 병든 환자를 치료하다가 생을 마감한 명 의이다.

참고문헌

1. 거창유씨족보. 1769, 1988년 거창유씨족보 己丑譜(1769년).
2. 유씨대종보.
3. 강양이씨족보.
4. 창령조씨족보.
5. 전주이씨 양령대군파족보.
6. 초계정씨족보.
7. 풍천임씨 목사공파족보. 1991년.
8. 여흥민씨족보. 1915년 여흥민씨족보. 1915년. 4권중 제 1권. 地1~2.
9. 숙종실록
10. 承政院日記. 1710년 숙종 36년/ 01월/21일(정해). 1710년 숙종 36년/ 02월/11일(병오)
11. 태의원선생안. 의약동참선생안.
12. 거창군지. 거창군사편찬위원회. 1997. 06.
13. 산청군지. 제5편 성씨와 인물. 2006년 5월 : 994.
14. 산청향교지. 1991 2월.
15. 산청의 한의학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보고서. 2009.
16. 산청박물관도록. 2008. 05 : 157-8.
17. 신연당 유이태 문집.
18. 목재집.
19. 신연당 유이태 증명장.
20. 麻疹篇 박주현. 『마진편 발간문』. 진주 : 회춘원약방. 1934년(소화9년).
21. 실험단방.
22. 인서문견록.
23. 『국역 실험단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12. 31.
24. 『한국전통의약총서 - 마진기방. 마진편. 마과회통』. 서울 : 대천연물과학연구소편. 1994년 11월 : 해제. 65.
25. 의종손익. 권11 『婦人門』.
26. 東儒學案. 하경진. 『영남학과 맥을 이은 유학자의 학술과 덕행을 고찰할 문헌』. 1943년.
27. 한국의학사 김두중(金斗鍾). 『한국의학사』. 서울 : 탐구당. 1966년(상, 하권 합본).
28. 한의학서고 김신권. 『한의학서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425-7, 774.
29. 杏雨書屋 藏書目錄. 『財團法人 武田科學財團』. 日本 大阪市. (주)臨川書店 : 日本 京都市. 1982년(소화57년). 6월 10일.
30. 대구사학회편. 『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 서울 : 푸른역사. 2005 : 268-74.
31. 김호. 『조선의 명의를』. 파주 : 삼림출판사. 2007 : 50-61.
32.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파주 : 들녘. 2011 : 255.
33.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 일지사. 2000년 : 107-8, 258.
34. 이규근. ‘조선 후기 내의원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2007 : 157.
35. 손홍렬. 『조선후기의 醫書編纂-영정조대를 중심으로』. 충북사학 제11.12합편. 충북사학회. 2000 : 320-1.
36. 오준호, 박상영, 안상우. 「왕실기록과 의서 속에 나타난 유이태의 행적」.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1 ; 17(1) : 1-10.
37. 한국전염병사 제5장 조선후기 3. 홍역의 창궐과 조선시대 후기의 마진학. 서울 : 대한감염학회. 2009년 10월 25 : 253.
38. 김중권. 「마진편의 저술시기 분석」. 서지학연구 제51지1 (2012.6).
39.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40. 박종섭. 『거창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대구 : 문창사. 1997 : 64-9.
41. 안동준. 『진주 옛이야기』. 서울 : 지식산업사. 2003.
42. 박종익 엮음. 『한국 구전 설화집』14. 서울 : 민속원. 2005.
43.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0 : 47.
44. 창성잡기.
45. 고의서산책 187 劉爾泰麻疹篇. 민족의학신문. 2004년 01월 30일.
46. 고의서산책 287 實驗單方. 민족의학신문. 2006년 04월 06일.
47. 고의서산책 505 劉爾泰麻疹方. 민족의학신문. 2011년 09월 22일.